

보도시점 2026. 3. 29.(일) 11:00
3. 30.(월) 조간 배포 2026. 3. 27.(금) 16:00

외식업 '매출 2억 5천만원' 시대 열렸다 ... 5년전 대비 41% 성장

-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

□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 **【매출 성장】** 2024년 연평균 매출액 5년 전 대비 41.4% 증가, 2억 5천만 원 시대
- **【수요 확대】** 2025년 1일 방문 고객 수 5년 전보다 약 1.3배(41.8명 → 53.0명) 확대
- **【경영 부담】** 2024년 영업이익률은 8.7% 수준으로 하락, 식재료비·인건비 부담
- **【디지털 전환 확산】** "터치"로 주문하는 식당 3배(무인주문기 도입 4.5% → 13.0%) 확대

디지털로 무장하고 실속으로 승부하는 2025년 대한민국 외식 지도가 공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3,138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0월 까지 방문 면접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의 변화도 분석해 볼 수 있다.

1. [외식 수요와 매출] 지갑은 열렸고 식당은 북적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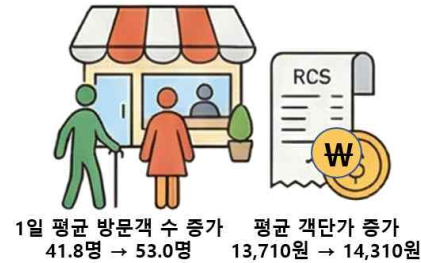
5년 새 매출액 41.4% 성장했지만 최근 1년은 1.4% 증가에 그침

2024년 실적 기준 외식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 5,526만 원으로, 2021년(1억 8,054만 원) 대비 무려 41.4%나 성장했다.

식당을 찾는 발길도 눈에 띄게 늘었다. 2025년 업체당 1일 평균 방문 고객 수는 53.0명으로, 5년 사이 1.27배 확대(2021년 41.8명)되었다. 평균 객단가도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그 오름폭이 정체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1년(2023년 대비 2024년)의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1.4%에 그치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업계는 가격 인상을 통해 원가 부담에 대응하여 외형적 성장을 이어 왔으나, 최근 고급리·고물가에 따른 실질 구매력 하락이 매출 성장 정체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외식 수요 >



< 연평균 매출액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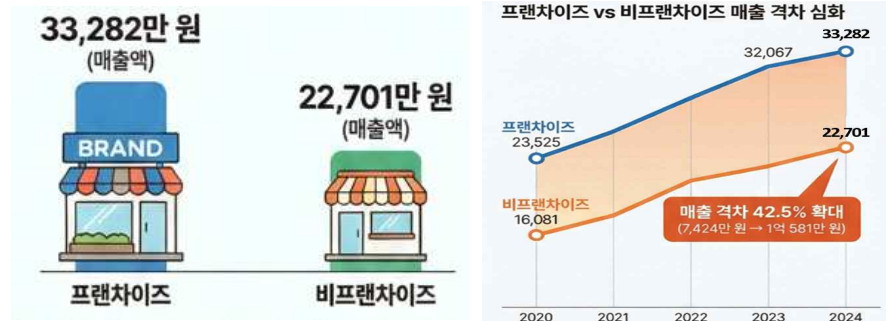
연평균 매출액 41.4% 성장, 그러나 성장세는 둔화
최근 1년 간 증가율 1.4%



특히 경영 형태에 따른 매출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3.3억 원)가 비 프랜차이즈(2.3억 원)보다 약 1.5배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5년 동안 브랜드 인지도를 앞세워 안정적 성장을 보인 프랜차이즈 업체와 비 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액 격차는 더 벌어졌다(7천만 원 → 1억 원 이상).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 연평균 매출액 비교 1. 가맹사업 여부 >



세부 업종별로도 그 차이가 뚜렷했다. 런치플레이션(점심+인플레이션)·가성비 트렌드에 업종별 희비가 교차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장 1위는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으로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101.2% 증가(1.8억 → 3.7억)하며 전 업종 중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역 축제나 외부 행사가 많아지면서 케이터링이나 푸드트럭 등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밥 및 간이음식점은 "불황 속 든든한 한 끼"로 5년 전 대비 매출액 70.3% 증가(1.1억 → 1.9억)하며 두 번째로 큰 성장세를 보였다.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며 매출이 확대되었고, 배달과 포장 매출 비중이 다른 업종 대비 높아 실속형 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다.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47.3% 증가(1.3억 → 1.9억)하며 비교적 큰 성장세를 보였다. "일상의 필수품이 된 카페"는 저가형 커피 브랜드의 확산과 '일일 1커피', '식후 커피', '업무나 학습 공간으로 카페 활용' 문화 정착이 매출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외식업체의 약 41%를 차지하는 한식 음식점업은 5년 전 대비 매출액이 46.0% 성장(1.3억 → 1.9억)했고 일식 또한 3.3억 원대를 기록하며 높은 매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다른 업종과의 배달 경쟁이 심화된 증식은 12.2% 성장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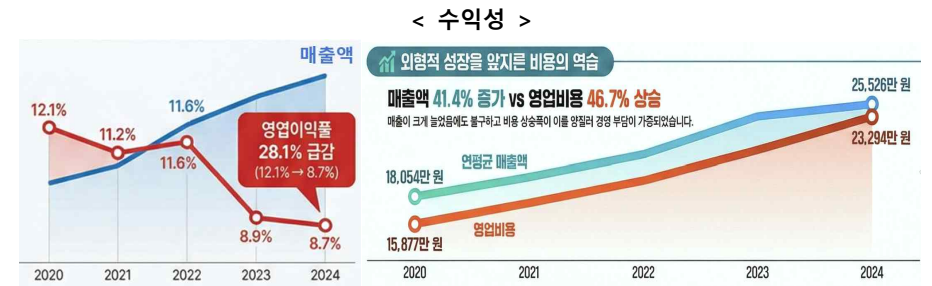
< 연평균 매출액 비교 2. 업종별 > (단위: 만 원)

업종	2020	2021	2022	2023	2024	증감률(%)		
						2020 대비	2022 대비	5년 평균 대비
전체	18,054	20,089	23,000	25,166	25,526	41.4	11.0	14.1
한식 음식점업	19,933	19,788	24,846	28,273	29,106	46.0	17.1	19.3
중식 음식점업	23,013	22,738	23,532	30,344	25,824	12.2	9.7	2.9
일식 음식점업	27,800	29,247	29,295	30,078	33,924	22.0	15.8	12.8
서양식 음식점업	20,561	21,357	22,950	28,545	27,110	31.9	18.1	12.5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18,680	18,178	21,279	27,530	23,999	28.5	12.8	9.4
기관 구내식당업	30,812	36,945	46,173	46,751	40,591	31.7	▲12.1	0.8
출장·이동 음식점업	18,559	42,067	42,236	38,639	37,332	101.2	▲11.6	4.4
제과점업	24,866	24,965	24,913	26,030	25,843	3.9	3.7	2.1
피자·햄버거·샌드위치 전문점	26,281	24,419	28,695	30,612	30,267	15.2	5.5	7.9
치킨전문점	19,872	24,516	26,359	28,669	25,473	28.2	▲3.4	2.0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11,165	13,707	16,562	18,636	19,017	70.3	14.8	20.2
간이 음식 포장판매 음식점업	15,643	42,284	23,619	20,872	22,183	41.8	▲6.1	▲11.0
주점업	12,919	19,328	21,651	19,246	20,199	56.4	▲6.7	8.2
비알코올 음료점	12,660	14,560	15,489	16,826	19,033	47.3	22.9	21.1

2. [수익 구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8.7% 수준으로 감소"

외식업체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성 악화였다. 지난 5년간 매출액이 41.4% 증가하는 동안 영업비용은 이보다 빠른 46.7%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그 결과 2020년 12.1%였던 영업이익률은 2024년 8.7%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특히 식재료비 비중은 36.3%에서 40.7%로 급증했다. 이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매출은 늘어도 실속은 줄어드는' 이른바 불황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였다.



3. [운영 방식] "이모넨~" 대신 "터치!"... 스마트 식당 3배 확대, 원물보다 전처리 식재료 구매로 '가성비·효율화' 도모

외식업체는 '인건비 절감'과 '운영 효율화'로 생존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 도입률은 2021년 4.5%에서 2025년 13.0%로 약 3배 확대되며, 인력난과 비용 절감을 위한 외식업체의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고 있다.

배달앱 이용 비중(30.0%)과 배달 대행 이용 비중(29.4%) 모두 꾸준한 이용률을 나타내며 디지털 플랫폼과 배달의 일상화를 보였다.

식재료 구매 형태 역시 '가성비·효율화'로 변화하고 있다. 매장에서 직접 손질해야 하는 원물 상태의 식재료 구매 비중은 2021년 73.3%에서 2025년 66.1%로 감소한 반면, 바로 조리가 가능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전처리 식재료의 구매 비중은 23.0%에서 29.3%로 크게 확대되었다.



농식품부는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도입 ▲디지털 전환지원 ▲경영안정 지원 ▲원료의 안정적 공급 ▲인력 수급 지원 등을 통해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외식사업자에게 ‘The외식 나침반’(빅데이터 기반 외식경영 분석 서비스)을 통해 자신의 매장을 객관적으로 진단(매출·고객·메뉴 트렌드 및 리뷰 분석)하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매출 2억 5천만원 시대라는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실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결과는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과 The외식 누리집(www.atf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개요

2.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주요 결과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최민지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이미영 (044-201-2170)

붙임 1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개요

1. 통계명 및 작성기관

- 통계명: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 작성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위탁기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종류: 일반통계
- 통계작성방법: 조사통계(전문면접원 투입을 통한 면대면조사)
- 승인번호: 제114054호

3. 작성 목적

- 외식산업 이해관계자에게 주기적인 경영실태 정보를 제공하여 경영개선 유도 및 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 발전 도모,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 근거: 「외식산업 진흥법」 제11조(외식산업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 조사 대상 및 규모

- 전국 3,138개 외식업체 사업주 및 실제 운영자
- * 모집단: 2023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에 해당하는 793,082개 사업체

5. 작성 주기, 조사 실시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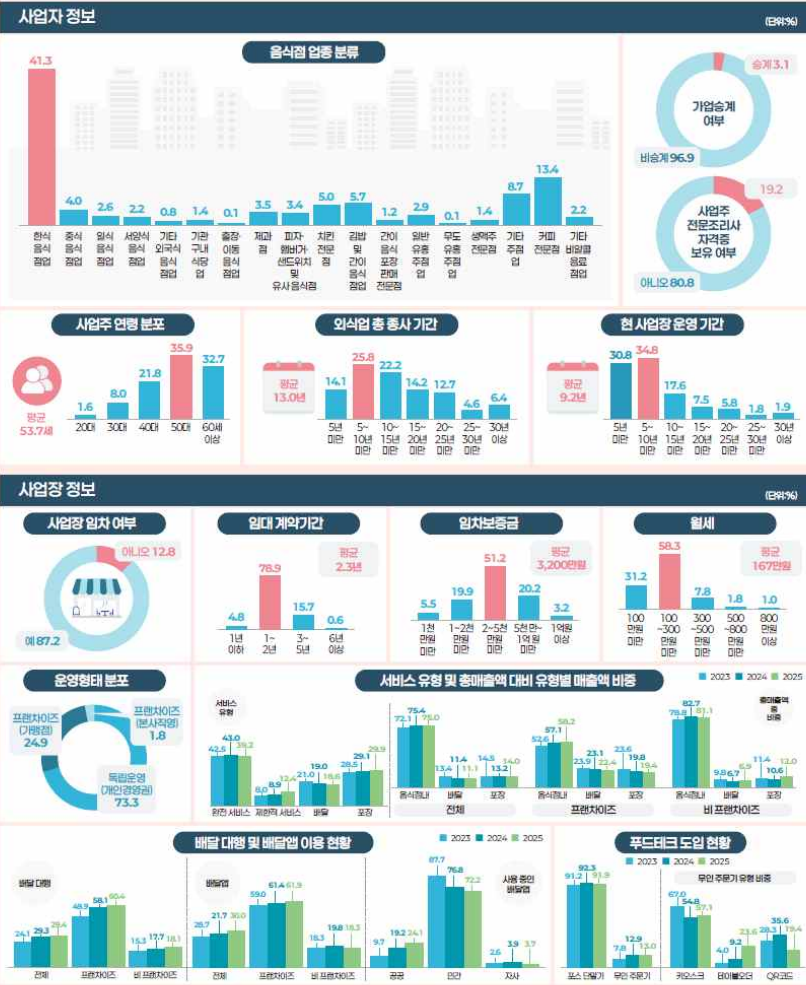
- 작성 주기: 1년
- 조사 실시 기간: 2025년 8월 4일 ~10월 31일
- 조사 대상 기간: 2025년 현재 기준
- * 사업장 영업 정보 중 사업실적(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2024년 1월~12월 기준

6. 조사내용

- 1) 외식업체 사업자: 업소명, 사업주 연령, 사업 년수, 사업장 신고면적 등
- 2) 사업장 정보: 상권분류, 업종, 영업시간, 영업 일수, 주요 고객 특성 등
- 3) 사업장 영업 정보: 매출액, 영업비용, 객단가, 방문 고객 수, 근로자 수 등
- 4) 식재료 구입 및 구입처: 품목류별 구입처, 구입처 이용 이유, 구매빈도 등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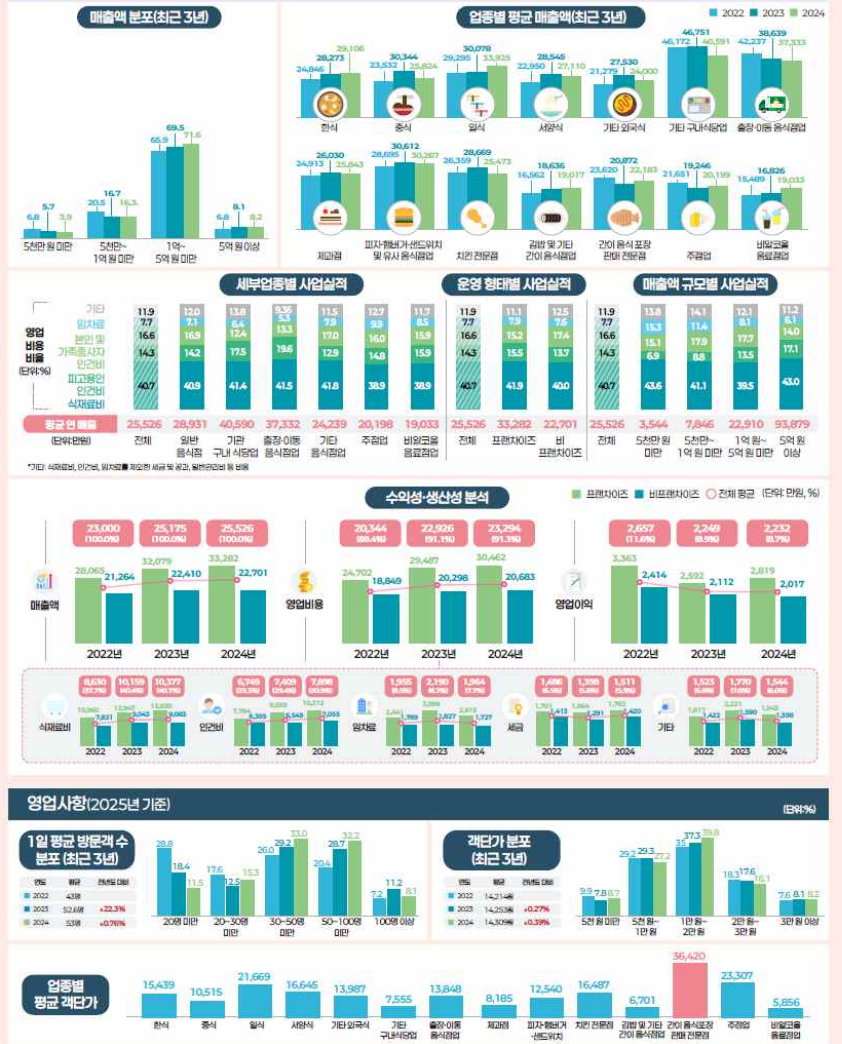
1 사업자 및 사업장 정보 (2025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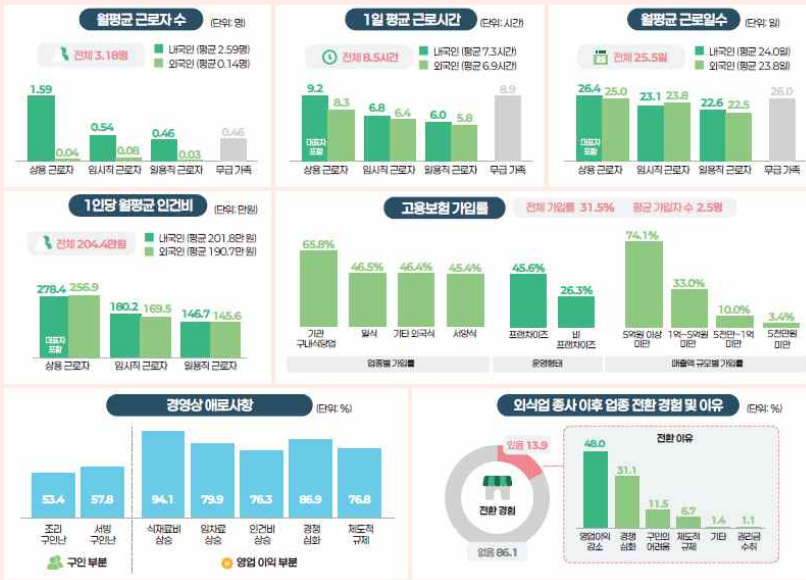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요약)

2 외식업체 경영실태

사업실적(2024년 기준)



2025 외식업체 경영실태 조사 결과(요약)



3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2025년 기준)

(base: 전국별 해당 업종 업체)

